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소분과(바이오) 제1차 회의 결과보고

2026. 1. 19.(월), 농어업정책팀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6. 1. 16.(금) 14:00 ~ 16:00 / 농특위 대회의실
- 목적 : 바이오에너지 소분과 의제방향 논의 및 추진계획 수립
- 참석자 : 9명
 -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소분과(태양광에너지) 위원 5명(붙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국 2명(이은영·김태원·전문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당부말씀

-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전력 중심의 태양광 시스템의 정착과 바이오에너지라는 핵심 축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에 달려있음. 축산분뇨부터 농산 부산물까지 원료의 다각화를 통해 자원 순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바이오매스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

□ 주요 회의내용

- 바이오에너지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에너지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수단에서 열에너지 공급 능력을 갖춘 국가 재생에너지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함
 - 원료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종 에너지 소비 단계까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규제가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지 파악해야 함
 - 현재 110개의 바이오가스 시설 중 민간 운영은 10여 개에 불과함. 독일 (1만 기 가동)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 전환 필요

- 주변 주민의 반대(외부 수용성) 뿐만 아니라, 설비 설치 주체인 농가(내부 수용성)가 느끼는 제도적 압박 해소에 중점
 -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인센티브 보다는 의무부여와 부담금 중심으로 설계되어, 농가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거부감 강함
 - 농가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 모색
 - 수용성의 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과 연계하여 해결되어야 함
 - 실제 설비를 설치할 부지 확보와 관련된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이 관건
-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원가 구조와 기술적 한계 극복 필요
 - 고체연료 제조원가(톤당 약 18만원)와 발전사 구매가(12~13만원) 사이의 약 5만원에 달하는 손실 구간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책 필요
 - 수분함량이 높은 분료 건조 시 에너지 소모가 많아, 이를 낮추기 위한 기술력 필요
 - 가축분뇨 만으로는 경제성이 낮아, 수분이 적은 농업부산물(고춧대, 가지대 등)을 혼합하여 수분율을 낮춰 제조 원가를 절감해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소분과 회의(‘26. 3. 12.)시, 바이오에너지 현장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논의
 - 소분과장 중심으로 위원별로 현황 분석 및 개선자료 작성

붙임**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바이오에너지 분과 참석 명단**

순번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비고
1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한석우	재생에너지 특위 위원장
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강정현	
3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윤영만	
4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이상철	
5	칠성에너지영농법인	본부장	최동석	

※ 위원명단은 가나다 순